

도-14개 시군 단체장, 전북 위해 힘모아

민선 8기 '제3차 도-시군정책협의회'...전북발전 한목소리 도정 주요 사항 논의·시군 우수시책 등 공유해 성과 확산

24일 전주 더메이호텔에서 김관영 도지사와 심민 전라북도 시장군수협의회회장(임실군수) 등 도내 14개 시장·군수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민선8기 '제3차 도-시·군 정책협의회'가 개최됐다. 이날 회의는 지난해 7월 민선 8기 출범 이후 세번째로 열리는 것으로 도내

단체장이 다시 한자리에 모여 도정 주요현안 등을 논의하며 내년 1월 18일에 출범하게 되는 전북특별자치도에 걸맞는 더 특별한 전북시대를 열어나가자는데 뜻을 함께 했다. 이날 도지사와 시장·군수들은 △시군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 제고 방안, △농생명산업 지구 지정 및 운영

방안, △지방물가 안정화 방안 등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를 펼쳤다. 또한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우수시책을 공유하며 전 시군에 확산될 수 있는 소통의 시간도 가졌다. 남원시는 남원 승화원 화장장을 인근 지자체인 임실과 순창군민들도 남원시민들과 동일한 조건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동사용 업무 협약 체결에 대한 추진 과정과 협약 내용을, 고창군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사업을 통해 군민과 외국인 근로자 모두 상생

하며 삶의 질,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게 추진하면서 나타난 성과 등 주요 우수시책이 소개됐다. 아울러, 이날 전북도-시·군 간 기업 애로해소를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됐다. 이 협약은 도와 14개 시·군이 1기업 1공무원 전담제를 14개 시군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도내 전역을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 가는 데 뜻을 모았다. 협약 주요 내용은 △도내 기업과 공무원(1기업-1공무원) 전담을 통해 기업 애로 해소, △기업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유관기관 네트워크 적극 활용, △불합리한 규제 발굴·개선, △도에서 구축하는 중소기업종합지원시스템 적극 이용, △기업하기 좋은 전북 구현을 위해 협회 등 5가지 내용을 담고 있으며, 도와 14개 시군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는데 긴밀히 협조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지난 24일 전주 더메이호텔에서 김관영 도지사와 심민 전라북도 시장군수협의회회장(임실군수) 등 도내 14개 시장·군수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민선8기 '제3차 도-시·군 정책협의회'를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겨울철 장애인복지시설 안전점검

전북도, 193개소 대상 내년 1월 19일까지 추진

전북도는 재난사태 사전 방지 및 시설 이용자·종사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도내 장애인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동절기 폭설 및 한파 등을 대비해 안전점검을 내년 1월 19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점검 대상은 도내 장애인복지

시설 193개소로 장애인거주시설 70개소,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93개소, 장애인직업재활시설(판매시설 포함) 30개소 등이다. 전북도는 오는 12월 19일까지 각 시설별 자체점검을 완료하고, 이후 지자체 현장점검과 민관합동점검을 병행

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특히, 소방, 가스, 전기, 시설물 등 전문분야에 대한 안전관리 상태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동절기 안전점검표에 따른 △전기, 가스, 시설물 안전관리 △안전관리자 교육 훈련 및 안전관리계획 수립 △책임보험 가입 여부 △동절기 재난대응 대책 마련 등이며 올해는 반대 집중점검 및 방제기간 운영 계획에 따른 반대 확인 및 예방을 위한 점검도 추진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건의사항·제도개선 요청 사항 등을 발굴하고,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도 철저히 이행할 예정이다. 이송희 전북도 복지여성보건의료정책관은 "동절기 안전사고에 대비해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예방조치를 실시해 시설 이용자, 생활자, 종사자가 안심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도, 환경사고 대비 완충저류시설 설치

2029년까지 15개소 설치키로

전북도는 화재·폭발 사고 등으로 산업단지에서 유출되는 유해화학물질을 일시적으로 저장해 수질오염사고를 방지하는 완충저류시설 구축을 위

해 내년부터 공사 착공과 사업비 확보 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완충저류시설 설치 대상 산업단지는 면적인 150만㎡ 이상, 특정 수질유해물질 포함 폐수배출량 200톤 이상, 폐수배출량이 1일 5,000톤 이상의

지역으로 우리 도내에는 15개소가 이에 속한다. 최근 새만금 산단 내 다수의 이차전지 사업장 입주와 화학물질 취급량 및 화학사고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완충저류시설의 중요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전북도는 실시계획이 완료된 4개 산업단지에 대해 2024년부터 공사 착공을 시작으로, 환경청과 협의 완료

된 7개 산업단지에 대해 예타 면제신청, 임대형민자사업(BTL) 추진여부 등 꼼꼼한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 할 계획이다. 또한, 3개 산업단지는 설치·운영계획 및 처리방안 등을 환경부와 협의하여 2025년부터 사업을 착수하고, 2029년에는 도내 15개소 모든 산업단지에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김재훈 기자

전북도, '올해의 SNS' 4관왕 쾌거

블로그·페이스북·인스타그램·유튜브 수상

전북도가 지난 2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제9회 '2023 올해의 SNS' 시상식에서 4관왕을 차지하는 쾌거를 거뒀다. (사)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가 주최한 이번 대회에서 전북도는 광역지자체 부문 블로그 대상, 페이스북 대상, 인스타그램 대상, 유튜브 최우수상 등 총 4개의 상을 거머쥐었다. 전북도는 가장 경쟁이 치열했던 4개 매체(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에서 모두 수상함으로써 명실상부 SNS 소통을 가장 잘하는 광역지자체로 평가받았다.

올해 누적 방문자 2,000만명을 돌파한 전라북도 블로그 '전북의 재발견'은 '10초 전북여행', 일러스트 에세이 등 공감형 콘텐츠를 제작해 지자체 블로그는 딱딱하다는 고정관념에서 탈피, 세대 간 소통에 큰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광역지자체 부문 대상 상을 차지했다.

18만3,000여명의 팬(친구) 수를 자랑하는 전북도 페이스북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연재한 '스페셜 전북' 시리즈와 '정책 퀴즈 이벤트' 등 사용자 참여형 콘텐츠를 통해 소통을 강화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올해로 개설 8년째를 맞이한 전북도 인스타그램은 SNS 내에서 영향력을 갖춘 인플루언서와의 협업을 통해 올해 콘텐츠 노출 수를 두 배 이상 높이고, '전북네컷' 등 젊은 세대의 취향을 고려한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여 다른 지자체와의 경쟁에서 앞섰다는 평가를 받았다.

2020년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 전북도 유튜브는 3만13,000명의 구독자를 확보해 올해 광역지자체 중 두 번째로 높은 구독자 증가율을 달성하였고, '인턴스텔라', '백원짜리대행사' 등 참신한 기획 영상 콘텐츠로 최대 8만 회 이상 조회수를 올리는 등 차별화된 채널 운영으로 광역지자체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김재훈 기자

동절기 노숙인 보호대책 추진

전북도, 한파 대비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3개월간 집중 운영

전북도는 동절기를 맞아 한파 및 폭설 등에 취약한 거리 노숙인의 조기 발견과 지원을 위해 '2023-2024년 동절기 노숙인 등 보호대책'을 추진한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거리 노숙인 중에는 고령자, 장애인, 알코올 중독자가 많아 동절기 한파에 동사사고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2023년 12월부터 2024년 2월까지 3개월간 집중 보호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전북도 내 5개 노숙인시설(전주 3, 군산 1, 익산 1)에 입소할 수 있는 인원은 255명으로 일시적 보호가 필요한

경우 응급 잠자리를 제공하고, 위기시설 등에 취약한 거리 노숙인의 조기 발견을 위해 역, 터미널, 시장, 상가 등 거리 노숙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주·야간 순찰을 확대하며 거리 노숙인의 건강상태 확인, 침낭, 손난로 등 겨울철 응급구호 물품 등을 지원한다. 또한, 도내 거리 노숙인 거점 지원시설인 '전주다시서가지지원센터'에서는 노숙인시설이 없는 시·군의 거리 노숙인 상담 및 일시보호, 복지서비스 연계로 동절기 노숙인 위기관리에 대응할 계획이다. /김재훈 기자

전북도,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경진대회 '대상'

전북도는 최근 환경부 주최, 이(E)-순환거버넌스가 주관하는 2023년 폐가전제품 무상방문수거 우수지자체 경진대회에서 방문수거 활성화 부문에서 대상(환경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매년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무상방문수거서비스 홍보, 운영 실적, 개선 노력 등을 종합적으

로 평가해 우수 지자체를 선정해 오고 있다. 특히 올해 평가는 방문수거 운영 부문과 활성화 부문 2개 분야로 나눠 진행됐으며, 방문수거 활성화 분야에서 △무상방문수거서비스 홍보, △수거체계 확대 및 개선 노력 등에 대해 전문가에 의한 서면·현장평가를 거쳐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김재훈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